



[산업] IT업계 소프트웨어 인재 영입·육성 06



Life

[라이프] 클수록 좋다 가전시장 프리미엄 전성시대



‘바다 위 건축물’ 크루즈 인천에 뒀다

〈셀러브리티〉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서 심투어 오는 10월 인천 승·하선 가능해

4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오픈 기점으로 크루즈 관련 업계가 들쭉이 있다. 10만톤 내외 대형 크루즈선사가 한국을 주요 기항지로 삼고 있다.

프리미엄 선사 셀러브리티크루즈의 밀레니엄호는 지난 4월 1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 여행사 임직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 ‘크루즈톡’ 회원과 함께한 심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투어는 단순히 크루즈를 둘러보는데 그치지 않고,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밀레니엄호의 선장, 크루즈 디렉터, 한국총판 대표의 환영사와 더불어 한국어번역이 추가된 크루즈 영상 상영 등 셀러브리티크루즈 선사 소개 및 최근 소식 업데이트가 진행돼 셀러브리티크루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선내 승무원 및 한국총판 직원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투어와 메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통해 셀러브리티크루즈 프리미엄 서비스와 품격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인천크루즈터미널에 기항한 셀러브리티크루즈. /이민희기자

의 장을 만들었다.

셀러브리티크루즈 총판 관계자는 “오는 2019년 10월 12일과 26일 각각 도쿄와 상해에서 출발하는 한중일 크루즈 일정의 경우, 인천에서 중간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하며, 중간 승·하선 진행 비용인 캐빈 당 65달러를 공제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인천 출발 또는 하선 일정을 원했던 승객에게 셀러브리티크루즈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셀러브리티크루즈는 바다위 최고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품격을 인정

받고 있는 대표 프리미엄 크루즈로 현재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카리브해, 남미, 남극,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순수자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닌 갈라파고스 등 전 세계 300여 기항지를 운항 중이다. 투어마케팅코리아에서 로얄캐리비안, 셀러브리티, 아자마라크루즈를 한국총판 한다.

한편, 오는 4월 18일 프린세스 크루즈가 보유한 14만톤 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가 부산항에 기항하고, 5월 20일은 초호화 크루즈인 ‘크리스탈 크루즈 심포니 호’가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여행 단신



외국관광청협회 회원들이 여행업계와 상호협력 증진 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OR

주한외국관광청협회 “여행업계와 상호 협력... 함께 발전할 것”

주한외국관광청협회(ANTOR)가 양무승 전 한국여행업협회장에 2013년~2018년까지 안토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우호 증진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7일 알려졌다.

양무승 전임 회장은 “본인 재임 기간 안토르의 협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외국 관광청과 여행업계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여식에는 안토르 각 관광청 대표를 비롯해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 홍기정 모두투어 전임 부회장,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 과장 등이 함께했다.

안토르(ANTOR)는 국내 진출한 외국 관광청 대표들이 회원간 정보 교류와 친목 그리고 공동 마케팅 목적으로 1992년 발족된 기관이다.

/이민희 기자

싱가포르항공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최고 항공사’

싱가포르항공이 2년 연속,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선정한 ‘세계 최고 항공사’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알려졌다.

싱가포르항공 CEO 고준풍은 “싱가포르항공이 지난 해 이어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 세계 싱가포르항공 직원들 및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립어드바이저 선임 부사장 브라이언 솔츠버그는 “싱가포르항공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행자 선정 최고 항공사’ 1위를 차지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상은 글로벌 여행자들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됐기에 싱가포르항공이 전 세계 여행자가 선호하는 항공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민희 기자

7개월째 지연... ‘판문점 관광’ 언제?

작년 10월 남북공동선언 이후 중단 판문점 관련 여행사들 문제 심각해

판문점 투어 중단은 2018년 9월 말 남북대화 시 논의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자유왕래’가 주된 이유다. 작년 10월, ‘남북공동선언 9·19’ 후 중단된 판문점 관광 및 투어가 7개월째 지연되며 해당 여행업체들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5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난 ‘판문점트레블센터’ 김봉기 사장은 “(판문점 접근이) 아예 차단됐다. 못들어 가고 있다. 판문점이 UN사 관할인데, 그동안 자유왕래라는 화두로 북측과 UN사령부, 한국간 3자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다”며 “제일 큰 문제는 북측 판문점투어는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적·경제적부분과 맞물려다 보니, 북측은 아쉬움과 불평이 없고



판문점트레블센터 김봉기 사장이 중단된 판문점투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희기자

오히려 북측 판문점 투어에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가는 형국”이라며 “영국 파트너 북측관광전문 업체인 고려투어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월 13일, 중국 관광객 800명이 공동경비구역 포함 북측 판문점 관광을 다녀갔고, 외국관광객 2그룹(31명)도 당일 투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3월 15일, 20명의 한 외국 그룹이 북측 판문점투어를 다녀갔고, 작년 10월 이후 북측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어’가 취소된 적이

없다”고 관련 자료까지 건넸다.

“이번 4월 평양따라톤도 상당히 많은 해외 관광객이 다녀갈 것 같다”며 “해외 80여개 여행사가 북한관광을 취급하는데, 오히려 더 개방적인 남측에서 판문점 관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고, 남측과 북측을 같이 관광 할 수 있는 길은 언제 열리냐는 등 이메일 및 문의가 쇄도한다”고 밝혔다.

김봉기 사장은 “청와대가 결정할 사항이다. 남북공동선언 9·19 선언하면서 JSA 비무장화, 민간인 자유왕래 합의했으나, 남측에서는 판문점 관광 관련 여행사들이 7개월째 여행업무중단 및 관련 직원들의 급여, 생계 등 문제점들이 심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까지 관련 여행업계 피해가 크니, 판문점투어가 잘 풀려지길 바란다”며 “3자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미래모습을 보여주는게 옳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민희 기자



남측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 /뉴시스



롯데제이티비여행, 서남병원과 헌혈행사

롯데그룹 여행사 롯데제이티비가 ‘사회적 가치창조 건강문화정책’ 뜻의 헌혈활동을 서남병원 과 3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박재영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 부문장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서남병원 과 MOU’계약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제이티비여행

롯데그룹 여행사 롯데제이티비가 ‘사회적 가치창조 건강문화정책’ 뜻의 헌혈활동을 서남병원 과 3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박재영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 부문장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서남병원 과 MOU’계약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제이티비여행

아웃리거리조트 한국 공식 웹사이트 오픈

하와이부터 태국, 괌 등 주요 휴양지에 위치한 세계적인 리조트그룹 ‘아웃리거 리조트’는 한국 개별 여행객의 예약 수요에 맞춰 한글 웹사이트를 오픈한다고 7일 알려졌다.

오픈 프로모션으로 하와이, 괌, 푸켓에 위치한 4개 호텔을 최대 25% 할인 부킹할 수 있다. 또, 하와이 아웃리거 리프 와이키키 비치는 4박 투숙 시 1박 무료제공 이벤트도 열린다. /이민희 기자



아웃리거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 /아웃리거리조트